

이혼한 한부모여성의 생애사 연구

이혜정⁺ · 송다영⁺⁺

[요약]

본 연구는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로 이혼율이 급증하였던 시대에 이혼한 한부모여성과 가족의 삶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를 당사자의 내부적 시선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자녀가 영유아시기에 이혼 후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해온 이혼한 한부모여성 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사회적 조건과 개인의 상호과정을 살펴보는 데 가장 적합한 연구방법인 생애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멘델바움의 ‘삶의 차원, 전환, 적응’이라는 시간성 분석개념과 범주적 내용접근을 이용하여 주제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가부장제의 실체는 약화되고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균열이 시작되었으며, 노동자로서의 생애전망을 초기 성인기에 구축한 여성들이 이혼을 통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사회안전망과 가족정책의 부재로 인해 노동권과 양육권의 충돌이 나타났으며, 의존이 구조화되고 생계부양과 돌봄의 불안정이 지속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상가족 신화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속에서 사회적 고립과 차별, 사회정서적,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고 자녀의 성장주기에 따라 심리정서적 고통을 반복적으로 겪어야 했다. 이들은 자녀독립 후 단독 가구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으나 새로운 생애 준비는 부족한 상황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 정책과 다양한 가족을 포괄하는 사회정책 기조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주제어: 이혼, 한부모, 한부모여성, 한부모가족, 생애사, 주제분석

※ 논문투고일 - 2019. 09. 30. 심사완료일 - 2019. 11. 25. 게재확정일 - 2019. 11. 25.

+ 주저자(aha34@naver.com),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 교신저자(dsong@inu.ac.kr),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서론

유일한 생계부양자, 양육자로 홀로 자녀를 데리고 사는 한부모여성의 삶은 녹록치 않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여성한 부모가구는 전체 한부모가구(2,167천 가구, 전체 가구의 10.9%)의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장래 가구추계, 2019). 조이혼율이 극단적으로 치솟았던 1998년(이혼건수: 116,294, 조이혼율: 2.5) 이후 20년이 넘는 흘렀다. 이혼했던 많은 한부모여성들이 자녀를 성년으로 성장시키고 새로운 단계의 인생 주기로 진입하고 있다. 하지만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의 불안정성과 성차별적인 이중노동시장, 자녀양육과 가사의 이중부담, 가부장적 사회문화적 맥락 아래서 이혼한 한부모여성(가족)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영위하고,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다.

한부모여성의 개인적 삶, 그 자녀의 삶은 노동권과 부모권이 조화롭게 확보될 때 안정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한부모는 존재 특성상 노동권과 부모권이 서로를 제약하는 이중구속의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한 측면만을 보아서는 삶 전체를 이해할 수 없으며 삶 전체를 관통하는 문제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혼한 한부모여성의 삶은 생계부양자로서의 삶, 부모로서의 삶이 양분될 수 없으며 그 두 역할이 서로 맞물리면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갈등과 적응의 씨실과 날실이 교차하는 삶의 구조에 놓여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까지 이혼한 한부모여성에 대한 연구는 현실적인 삶의 조건과 성역할에 치우쳐 부모권 중심의 ‘부모됨’ 혹은 ‘어머니의 경험’ 등에 초점이 맞춰지거나(김경옥, 2017; 윤정연·유미숙, 2018; 백은영·이명우, 2018), 빈곤(노동)의 경험이나 저소득층 가구의 역할수행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를 이루어왔다(조희선·전보영, 2013; 정이윤, 2016).

본 연구는 이혼한 한부모의 실재적 삶을 총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노동권과 부모권이 교차하는 생애 전반에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여성한부모와 그 가족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어떤 생애주기를 경험하는지 주목하고자 한다. 조이혼율 급증했던 시기를 전후해 이혼한 한부모여성들은 2019년 현재 자녀양육을 마치고 독립을 시키는 시기를 거쳐 가고 있으며, 당사자 본인은 중년기나 초기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다. 따라서 이들 한부모 여성의 생애사는 이혼 한부모가족의 삶과 발달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수 있다.

또한 한부모여성의 생애사를 통해 한부모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 사회적 맥락, 한

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생애사 연구는 과거를 단절된 시간적 영역으로 간주하거나, 현재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한 개인의 생애사는 단순히 한 개인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주관적인 삶의 더미나 행위의 총합이 아닌 역사적이며 정치적인 것(Bertaux, 1981)이고 사회와의 상호작용의 접점에서 발현된 사회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개인의 생애사를 통해서 특정 사회의 구체적 일관성 즉, 우리 사회가 이혼한 한부모여성에게 갖는 태도나 인식, 사회적 맥락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또한 이혼한 한부모여성들이 사회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행위하고 대응했는가와 그로 인한 변화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혼한 한부모여성의 생을 통해 급변했던 한국사회의 사회문화, 경제적 맥락을 탐색하고, 한부모여성과 가족의 역동성과 전체성을 바라보고자 한다. 또한 이혼한 한부모여성의 생애사를 통해 한부모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가 어떤 양상으로 변화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부모여성의 생애는 가족 다양성에 대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기늬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한 시대를 살아낸 이혼한 한부모여성과 가족의 삶을 통해 가족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문화제도의 재구성 방향과 한부모여성(가족)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이혼 한부모여성에 대한 선행연구

이혼한 한부모여성에 대해 접근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첫째, 경제적 측면의 어려움을 빈곤의 여성화라는 측면에서 다룬 연구들이 있다. 둘째, 한부모여성의 가장 큰 과업인 자녀돌봄, 자녀의 성장과 관련된 연구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혼한 여성들의 심리사회적 측면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Pearce(1978)는 미국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와 교육수준 향상에도 여성의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을 주목하면서 ‘여성의 빈곤화’를 제기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부모여성은 이혼 후 일을 해도 불안정고용과 낮은 소득지위로 인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함을 보고하고 있다(김혜영·변화순·윤홍식, 2008; 정이윤, 2016; Maldonado

and Nieuwenhuis, 2015; Kramer, Myhra, Zuiker and Bauer, 2016).

다음으로 이혼한 한부모여성의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부적응 양상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한부모의 지각된 사회적 차별과 자녀의 인터넷 사용 문제가 이혼 후 자녀의 변화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최효식, 2018), 타인의 눈을 의식하면서 위축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들 또한 다양한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문제를 경험한다(윤정연·유미숙, 2018). 또한 경제적 문제 해결에 주력하여 자녀를 위한 학습 조력자역할에 어려움을 겪고(김경옥, 2017; 윤정연·유미숙, 2018), 빈곤으로 인한 자녀의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이 보고되었다(황희숙, 2015; Daryanani, Hamilton, Abramson and Alloy, 2016). 또한 한부모여성은 한부모남성에 비해 가족생활(자녀양육)에서 확대가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은영·김보람, 2010).

마지막으로 이혼한 한부모여성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연구결과들은 약간 상반된 결과를 보인다. 일부 연구는 한부모여성이 일반 여성에 비해 심리적 불안정이 높다고 보고하였다(김혜선·김은하, 2018; Barnhart and Maguire-Jack, 2016). 반면 질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들은 이혼 후 적응을 통해 사회심리적으로 건강해지는 상황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손서희, 2013; 조희선·전보영, 2013; 백은영·이명우, 2018).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한부모여성의 노동(빈곤), 양육 및 사회·심리적 문제를 개별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여러 문제간 상호성과 중층성을 드러내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제까지의 연구는 한부모여성의 노동·양육·심리정서가 어떻게 서로를 제약·구속하고, 때론 조정·보완하는지, 어떠한 대응을 통해 자신의 삶을 재구성해나가는지, 그 총체적 양상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생애사 연구를 통해 이혼 한부모여성의 노동과 돌봄과 사회심리의 전체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한부모여성들이 삶을 어떻게 구성해왔는지 그들의 수행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2) 한부모 가족발달이론 연구와 한계

현대사회에서는 무자녀 부부가족, 1인 가구, 한부모가족, 동거 가족, 미혼모 가족, 공동체 가족, 동성애 가족 등 전통적 규범을 벗어난 비전형 가족이 확대되고 있다. 사회적 규범과 통제의 산물로서 ‘단일한 가족’(the family)보다 현대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다양한 가족’(families)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Gubrium and Hostein, 1990). 하지만 ‘가

족형성기, 가족확대기, 가족축소기로 일반화되는 가족발달이론은 기존 정상가족의 규범적 틀에 갇혀있다. 가족발달이론이 전제하고 있는 중산층 핵가족을 모델은 다양한 가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역사적 시간을 간과하고 있다.

카터와 맥골드릭(Cater and McGoldrick, 1988)은 기존의 핵가족 중심의 가족발달이론이 이혼가족, 재혼가족 등 현대사회의 새로운 가족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반영하여 이혼가족, 재혼 가족의 발달단계를 아우르는 가족생활주기 이론을 제시하였다. 카터와 맥골드릭은 이혼 및 재혼을 동반한 가족생활주기의 분열과 재형성 과정을 ‘이혼을 결심하는 시기, 가족을 해체하는 시기, 이혼이 이루어지는 시기, 재혼을 통한 새로운 가족의 구성’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은 다양한 가족형태의 생애주기를 포괄하여 변화하는 가족들의 생애를 보여주는 새로운 접근을 제시했지만, 이 또한 지나치게 가족발달과정을 단선적이고 단계적으로 바라보는 한계가 있다. 이혼과 이혼 이후의 과정이 이들이 제시하는 양상과 단계처럼 단순하다면 이혼과 이혼 후의 적응도 일정한 도식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단계론적 접근은 이념적 도식일 뿐 복잡다단한 현실을 깊이 있게 반영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특히 가부장제의 전통이 강력하고, 부모-자식간 관계가 강한 영향력을 가진 한국사회에서 단선적, 단계적 접근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의 이혼을 전후한 삶의 구성과, 여성 한부모가족의 생애주기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정민자·문혜선(2012)은 가족생애사적 관점에서 이혼여성의 생애 주요사건을 알아보고 결혼 전 가족생애사적 경험과 결혼 후 가족생애사적 경험의 과정별 연관성을 탐색하였지만, 이혼 전후의 과정에만 초점을 두었다. 윤정연·유미숙(2018)도 이혼한 한부모여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유기체로서 그 가족을 파악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애전반을 보고 있지만 한부모여성의 주체적 행위전략을 드러내지는 못하였다. 조희선·전보영(2013)은 한부모로만 일반화되었던 이혼한 여성한부모의 삶을 여성가구주로서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적응을 분석했으나 시간적 변화추이나 전개를 완전하게 드러내지는 못했다.

이들 연구는 이혼이라는 사건을 전후로 변화된 가족생활과 특정한 시기에 초점을 둔 연구들로 이혼한 한부모여성 생애의 전체성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가족은 역사적 시기별로 특수성을 띤 사회적 구조물로 각각의 가족들에게서 일어난 변화나 경험들이 사회적 추세를 형성하고 사회 변화를 주도하기도 한다(Gubrium and Hostein, 1990). 이

러한 관점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이혼한 한부모여성이 살아온 시대의 시간성 아래서 가족의 변화와 적응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19년 현재에 이르는 생애사를 통해 한 사회의 시대적 흐름과 변화 속에 구성된 한부모가족 삶의 역동을 추적하면서 따라가 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이혼한 한부모여성의 생애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생애사 연구방법을 선택하였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사회구조적 변화와 이에 대한 대처 과정에서 한국사회 이혼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가족의 다양성은 확대되었다. 생애사 연구는 이혼한 한부모여성의 삶과 시대를 조망하는데 가장 잘 부합하는 연구방법이다. 생애사연구는 사회적 조건과 개인의 상호과정을 살펴보는 방법론에 기초하기 때문이다(Bertaux, 1981). 생애사는 개인의 삶에서 직면하는 사회적 실재를 자신의 행위를 통해 수용 혹은 대응, 재구성 하여 자신만의 이력을 만든 결과물로 볼 수 있다. 개인 앞에 놓인 사회적 조건, 규범과 질서는 전적으로 개인을 규정할 수 없다. 그것이 개인에게 작용하는 영향력은 개인마다 상이하며 대응도 상이하다. 개인은 사회적 조건과 상호과정을 통해 독특한 삶의 양상을 구축하는데, 생애사는 개인이 구조화한 발현물이다. 특정한 사회의 개인과 해당 사회적 질서가 만들어낸 구성물인 생애사는 바로 개인과 사회를 통합하는 매개물이라 할 수 있다(Fischer-Rosenthal, 1996: 이희영 재인용, 2005).

생애사연구는 참여자의 자유로운 구술을 통해 스스로가 자신의 생애를 되도록 특정한 주제와 시간 혹은 장소의 구애 없이 자유롭게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생애사연구는 서사적 인터뷰(narratives interview)로 진행되어 전체 생애사에 대한 열린 질문으로 자유로운 생애사적 서술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참여자의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인터뷰를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방식을 취했으며, 연구참여자의 표정의 변화 등도 최대한 기록하고자 하였다. 인터뷰는 한 회에 2시간 이상 소요되었으며 각 참여자별로 1회에 진행하였으며 추가질문은 유선으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참여자의

집이나 비영리단체의 독립적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먼저, 우선 이혼이 급증하고 가족구조의 변화 양상이 드러나기 시작한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결혼하고 최소한 막내 자녀가 영유아기에 이혼(별거 포함)을 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한 한부모여성을 선정하였다. 이혼의 시점은 별거와 법적 이혼을 포함하였다. 참여자들의 표집은 지역사회에서 개인적 유대가 있던 분으로부터 시작하여 눈덩이 표집으로 확대하였다.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분들은 면담 전에 유선 통화를 통해 1차 구두동의를 구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 자세히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다시 설명하였다. 또한 비밀보장과 녹음과 자료의 처리과정을 설명하고, 연구 동의서와 녹음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또한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인터뷰를 중단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

연구참여자	연령	학력	성인기직업	현재직업	결혼과 이혼
참여자 1	55	고졸	사무관리직	영업직	-1994년 결혼 -1996년 별거시작(자녀 두 살 때) -1997년 이혼서류정리, 2004년 법적이혼
참여자 2	51	고졸	사무관리직	사무직	-1996년 결혼 -1998년 (자녀 돌전) 법적으로 이혼
참여자 3	49	고졸	사무직	비정규직	-1994년 결혼 -2004년 별거시작 -2006년(막내, 6살) 최종 법적이혼

(1)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1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건설업계에서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다. 20살부터 경력이 쌓이고 사장의 신임도 두터워 행정과 조직 전반을 아우르는 업무를 진행하였고 수입도 상당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는 상태로 직장생활을 중심으로 생활하던 중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 결혼을 해야겠다는 의무감이 생겼고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남자와 결혼을 결정하였다. 결혼 준비하면서 결혼 상대의 성실하지 못한 삶의 태도와 여자에게 기대어 살려고 하는 모습에 실망하고 결혼을 취소하고 싶

어 잠적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알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본격적인 전쟁은 시작되었다. 남편은 경제적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연구참여자 1의 사회생활에는 간섭했고 거의 ‘의처증’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일을 그만두고 남편에게 집안 경제를 책임지라고 요구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아이가 두 살 때부터 별거가 시작되고, 다시 살림을 합쳤다가 2004년 법적으로 이혼서류를 정리했다. 자녀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으며 법정 한부모로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2) 연구참여자 2

연구참여자 2는 현재 51세로 1996년에 결혼을 하였다. 집안의 경제적 사정으로 상고를 입학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을 떠나 본 적이 없었다. 자신의 일과 삶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편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예기치 않게 눈물도 흘리고 목이 메기도 했다.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 1997년 경제위기로 실직한 남편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집에서 노는 시간이 길어졌다. 처음엔 본인이 벌고 있으니 걱정은 없었다. 놀고 있는 남편이 무시당한다고 느낄까 봐 반찬도 더 신경 쓰고 더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더 냉담하고 가족 일에도 무책임했다. 아이의 출산을 전후해서도 남편의 그런 모습은 변화지 않았다.

출산 후 경제적 책임, 가사에 육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혼은 남편이 쉽게 동의를 해 빠르게 이루어졌고 양육권은 참여자 2가 가지기로 했다. 그 이후 가족도 등지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 동네의 영세 사업장에 취직해서 생활을 했다. 하지만 도저히 생활이 되지 않아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업종의 안정적인 일자리로 다시 취업하게 되었다. 언니의 중재로 엄마가 자녀를 돌봐주기로 결정하여 가능한 일이었다. 이후 엄마와 살림을 합쳐 지금까지 살아왔다. 자녀는 군복무 중이며 자녀의 성장, 공간적 분리를 통해 심리정서적으로 편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으나 엄마와의 가구분리, 아들과의 가구분리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3) 연구참여자 3

연구참여자 3은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어려서부터 알바를 하면서 자립적인 생활을 해왔다. 스스로의 결정으로 상고에 진학했고, 졸업 후 곧바로 사무직에서 사회생활을 했다. 어떤 상황에서 만났던 간에 좋은 관계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성이 뛰

어난 분이라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었다.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일본에 있는 이모에게로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계획으로 다니기 시작한 일본어학원에서 남편을 만나 1994년 결혼을 하였다. 시댁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시댁 근처의 공장에서 경리 생활을 하였다. 결혼 전 살가웠던 시어머니는 연구참여자 3의 직장생활을 못마땅해 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연구참여자 3에게 퍼붓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임신 후 이혼을 결심했지만 분가하는 것으로 봉합되었다. 분가 이후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퇴사하게 되고, 안정적인 직장을 못 잡고 비정규직으로 전전긍긍하게 된다. 남편 대신 연구참여자 3이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사이 남편은 외도를 반복하였다. 빈곤과 남편의 외도 속에서 남편을 구슬려 이혼을 했다.

이혼 후 한부모자립시설에서 생활을 하다 독립을 했고 조건부 수급으로 생활했다. 자녀가 셋으로 막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내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이 끝나게 된다. 그 시점부터 자녀들이 완전히 독립하고, 그 이후 홀로 남는 시기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3) 분석방법

생애사 연구에서 시간성에 대한 이해는 생애사 분석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개인적인 사건과 경험을 사회적 조건과 맥락에 근거하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생애사의 시간성과 관련하여 만델바움(Mandelbaum)의 분석방법을 사용했다. 만델바움(1973; 한경혜, 2005 재인용)은 생애사 연구를 기존의 연대기 순 생애사 서술이 아닌 분석개념으로 ‘삶의 영역과 전환, 적응’이라는 세 차원을 제시하였다. ‘삶의 영역’이란 참여자의 내러티브에서 나타난 시공간적 배경 혹은 특정한 삶의 영역으로 참여자의 삶에 영향을 미친 동력을 분석하는 개념이다. ‘전환’이란 삶의 궤적에서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는 결정적 순간으로 가장 중요한 특별한 사건이나 경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연구자의 삶을 구획하는 기준이 된다. ‘적응’은 개인의 고유한 적응양식으로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변화와 연속성의 측면을 이해하는 유용한 개념이다.

생애사 텍스트의 내용분석을 위해 범주적 접근을 사용하였다. 범주적 내용접근은 여러 개의 생애사로부터 공통의 주제를 도출하는 분석법이다. 참여자들의 생애과정의 유형을 파악하고, 다양한 유형과 사회문화적 요소와의 관련성을 탐색하는데 유용한 분석

방법이다(한경혜, 2005). 범주의 발견은 기존 사회과학 및 인문학적 이론을 토대로 하거나 자료를 코딩함으로써 생성할 수도 있다. 먼저 자료 전체를 읽고 자료가 주는 인상과 전체 이야기의 구조를 찾고자 하였다. 그 뒤 개방코딩을 통해 자료가 이야기하는 즉, 연구참여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관심사, 중심문제가 출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비교하였다. 비교를 통해 범주가 출현하고, 더 많은 비교를 통해 속성이 출현하고, 유사한 패턴을 찾아 핵심범주를 찾고, 주제를 도출하였다(Glaser, 1998).

분석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미와 맥락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질문을 진행하였다. 자료분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도교수에게 주제서술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또한 함께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동료연구자에게 주제서술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연구참여자에게 주제서술을 제시하고 연구참여자의 의도와 의미가 제대로 출현했는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4. 주제 분석

삶의 차원과 전환, 적응에 따른 주제분석의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시간성에 따른 주제 서술문

시간성	주제 분석
삶의 차원	전통적 규범과 낭만적 사랑의 모호한 결과로서의 결혼
	모든 남자가 가부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위기 이후, 남성의 불안한 고용이 확대되다
	여성 노동자의 일대기가 시작되다
전환	세상에 어떤 이혼도 쉬운 이혼은 없다
	내가 선택한 이혼
	이혼 후 찾아온 신체적, 정신적 고통
	가부장제의 규범은 강하고, 가부장제의 실체는 없다
	가족도 외면하는 이혼, 고립과 단절로 이어지다
	좁고 가느다란 사회적 안전망, 낙인화된 안전망
적응	이혼과 한부모, 차별의 이유가 되다
	아이와 함께 성장하다
	노동과 양육의 줄타기
	성찰과 강점으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다
	이제, 진정한 독립이 필요하다

1) 삶의 차원

(1) 전통적 규범과 낭만적 사랑의 모호한 결과로서의 결혼

한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서 결혼과 가족의 구성은 보편적 과업으로 강조되어왔다. 하지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불안정성과 위협의 확대 속에 결혼이 생애 보편적 과업이 아닌 선택지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 규범보다 ‘낭만적 연애’와 ‘치밀한 교환’이 교차하는 현실에서 결혼은 선택된다. 하지만 참여자들이 결혼을 했던 1990년대 중후반, 결혼은 여전히 전통적 사회규범으로 혹은 생애의 보편적 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참여자 1은 1994년 당시 30살에 연애결혼을 했고, 참여자 2는 1996년 28살에 소개로 만난 남자와, 연구자 3은 1994년 25살의 나이에 연애하던 남성과 결혼을 했다. 참여자 1은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발병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된 도리로 결혼을 해야겠다는 전통적 규범에 따라 결혼을 결정했다. 물론 아버지가 표면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당연히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덜컥 임신까지 하게 되자 결혼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연구참여자 1은 ‘지금만 같아도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버지가 아프면서 결혼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만나던 사람도 있었구... 아버지가 어떻게 되기 전에 결혼을 해야겠더라고요. 강요당한 건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이...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 일주일 앞두고 잠수도 탔지. 근데 방에서 누워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는데 아버지의 얼굴이 아른거리더라고. 벌써 뱃속에 아이는 있었고, 아이를 미혼모의 아이로 키울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고. 지금만 같아도 재산 다 툭툭 정리해서 미혼모가 됐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미혼모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연구참여자 1)

참여자 2는 부모님이 행복한 모습을 별로 볼 수 없었던 가족에서 자라나 결혼에 대한 큰 기대도 없었다. 하지만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차자 주변에서 소개해 준 남자와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을 결정했다.

참여자 3만이 ‘좋아서’ 결혼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본어 학원에서 만난 남편은 꽤 재미있는 사람으로 대학도 나오고, 자신이 ‘오빠, 오빠’하며 친근하게 지내면서

연애가 시작되었다. 남성이 준비하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서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다. 그런데 결혼의 또 다른 이유에 “남자는 아버지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시아버지가 정말 선해 보이더구요”라는 부연설명이 붙었다.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고 남편을 좀 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술회하기도 했다.

1990년대부터 조사된 조혼인율의 지표를 살펴보면 조금씩의 반등은 있었지만 1997년까지 인구 천 명당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으며(통계청, 2019) 당시 결혼은 미혼 남녀에게 규범이고 당연한 생애전망이었다. 당연한 생애전망 앞에서 참여자들은 결혼 상대에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누구와 사랑하고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망임에도 불과하고 결혼에 대한 규범성이 강한 사회에서 참여자들은 결혼의 대상과 과정에서 획득해야 할 중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결혼이라는 결과로 나아갔다. 완벽한 낭만적 사랑도, 결혼이 자신의 삶에 새로운 전망과 발전과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합리적 계산이나 확신도 없는 상태로, 남편이 될 사람에 대한 확고한 신뢰도 없이 결혼을 결정했다. 이전 세대처럼 부모의 결정에 의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낭만적 사랑의 결과나 면밀한 계산적 행위도 아닌 결혼규범과 낭만적 사랑이라는 모호한 상태의 결합이었다. 이러한 결혼은 두 사람을 공고하게 묶고 가족을 유지하는데 한계로 나타나게 된다.

(2) 모든 남자가 가부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가부장제의 규범이 강한 사회에서 남성은 생계부양자라는 책임과 역할을 규범으로 떠안게 된다. 하지만 연구참여자들이 만난 남성들은 우리사회에서 당연하게 상정된 가부장이 아니었다. 사실 가부장제 사회의 가장 무서운 통념은 ‘모든 남성이 가부장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는 이념형이거나 짧은 근대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산물일 뿐 자본주의 이전과 후기 산업사회, 특히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 여성은 노동의 구조 속에서 존재하였고, 가족 부양을 함께 책임져왔다(송다영 외, 2019). 하지만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힘은 강력해서 결혼을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에서 남자는 ‘가부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하지만 사실 참여자들이 만난 남성들은 가부장제 사회의 통념, 기대와는 사실상 멀었다.

참여자 1의 남편은 결혼 당시 안정적인 직장이 없는 상태였다. 그래도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달라지리라 믿었다. 하지만 자기 삶과 가족의 삶을 책임지고자 하는 성

실함이나 책임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의처증 비슷한 증세까지 있어서 살아보려고 밖에 나가서 일하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자신과 시댁에게도 무조건 복종하길 요구했다.

난 내가 성실하게 일하면 안되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랑 정 반대되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냥 뜬 구름 잡는 사람인 거지. 가정교육도 안됐다는 생각도 들고 내가 한 때는 잘나갔고, 가진 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 나를 봉으로 본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 평생 나에게 기생해서 살려고 하는구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연구참여자 1)

참여자 2도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의 모습에 실망하기 시작했다. 결혼 후 알고 보니 군복무를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고 소소한 거짓말들이 이어졌다. 게다가 보통 결혼한 남자들이 하는 집안일도 할 줄 모르고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서 가장의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실직을 당하고서는 다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무위도식하는 삶이 지속됐다.

참여자 3도 결혼하는 순간부터 가정의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정보를 찾고 방법을 찾고 필요한 결정과 집행을 대부분 참여자 3이 하는 상황이었다. 집을 얻고, 대출을 받고, 가정생활에서 요구되는 많은 일들이 대부분 참여자 3에 의해 수행되었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퇴직한 남편은 이후 생계부양자 역할까지도 포기하였다. 결국 보다 못한 참여자 3은 당시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하여 가족 내 부부간 성역할을 바꾸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달고 사는 거예요. 아무 대책 없이 그만두겠다고 하고. 당시 주식이 유행이었는데, 돈을 번 결과만 보고, 어떤 과정이었는데는 전혀 안 보는 거예요... (남편 퇴사 후)보험할 때 알게 된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 너희 집은 네가 벌어야 되는 것 같다. 남자가 돈 벌고 여자 살림하는 건 옛날 얘기다. 여자가 집에서 남자가 돈 벌어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옛날 말이다”. 제가 벌어야 된다고, 그 때가 한참 ‘불량주부’라는 드라마를 했었어요. 남편이 살림하는..., 남편이 공부머리는 나보다 나오니까 자격증 공부하고 살림하라고 하고 저는 돈을 벌었죠. 확실히 편하기는 하더라고요. 돈만 버니까... (연구참여자 3)

참여자 3의 남편은 전업주부로 역할을 하면서 결국 불륜관계를 형성한다. 사회통념에 반하는 남녀 간의 역할 전환은 자존감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부정적 저항으로 발현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가부장제 신화’ 속에서 그 역할을 완수하지 못한 남성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학습된 가부장성을 분출한다. 참여자 1의 남편은 가장 역할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친절 가서 돈을 가져오라고 부인을 닦달하고, 참여자 2의 남편은 무위도식하며 가장 역할을 하는 아내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참여자 3의 남편은 가부장제신화를 수행하지 못하는 낙오감을 다른 여성과의 불륜으로 저항하였다.

(3) 경제위기 이후, 남성의 불안한 고용이 확대되다

IMF 이후 한국사회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경제체계에서 요구되는 노동의 유연화를 구조화하게 되었고 비정규직은 대부분의 직종, 새로운 일자리의 특징이었다. 참여자 1, 2, 3의 남편들은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회사에서 실직을 당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다. 그들이 그전과 다른 모습으로 정신을 차리고 직업을 찾는다고 해도 그것은 대부분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비정규직의 불리한 노동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경험했던 남성들에게 견디기 힘든 곳일 수 있었다.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인 1인 생계부양자모델이 무너지기 시작했지만 이들 남성들은 이것을 읽어낼 수도 없었고, 자신들의 내면에 있었던 가부장제 의식은 조여 오는 위기의 상황에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분출될 수밖에 없었다.

참여자2의 남편은 1997년 경제위기를 맞으며 1차적인 인원정리대상으로 실직되었다. 실직 자체보다 실직 이후 남편의 모습이 더 문제로 나타났다. 남편은 생계를 책임지고 집안일도 다하는 참여자 2에게 미안함도 고마움도 없었다. 무능력하지만 가부장의 권위는 유지하고 싶은 이기적인 사람일 뿐이었다. 결국 이혼 후 참여자 2의 남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경제위기 이후 가족위기와 경제불안정성이 현실화되면서 해외 이민은 선택지 중 하나였으며(장경섭, 2009) 이에 비추어 보면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참여자 3의 남편도 1997년 경제위기 직후 직장 내 부정행위와 연루되어 안정적인 직장에서 퇴사 후 변화된 사회상황에서 다시 일어서기란 쉽지 않았다. 새로 입사한 모든 직장은 비정규직이었고, 정착을 못하는 남편은 다시 퇴사와 비정규직을 순환했고, 그러다 시작한 사업도 결국은 빚만 남기고 폐업으로 이어졌다.

사실 퇴사를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제발 퇴사는 하지 말라고 했죠. 처벌이야 받겠지만 직장을 쫓겨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또 자기 맘대로, 아무 것도 없는데, 퇴사를 하고 왔더라고요. 퇴사 후 일을 안 한 건 아니구 그래도 놀다가 일을 찾아 나가더라고요. 우체국 택배, 공항 보안, 마지막이 지하철 시설 쪽에 갔죠. 들어가는게 잘 들어가요. 상품은 괜찮아서 선해 보이니까 취직은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얘기하자면 다 비정규직이었던 거죠. 2-3개월 나가다 그만두고, 그만두고..(중략).. 제 동생하고 대리기사 사업도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홀랑 망하더라고요.. 진짜 되는 게 없는 거지요 (연구참여자 2)

참여자 3이 겪은 이야기는 우리나라 소위 남성 가장들의 겪었던 일대기이다. 이제 남성 1인 생계부양자의 시대는 저물어 가기 시작했다. 이제 경제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고 심화되는 불평등한 경제구조에서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들도 노동시장에 남성 생계부양을 보조하거나, 함께 생계를 부양해야하는 1.5 생계부양자모델, 혹은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의 시대가 강제되기 시작한 것이다.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은 약화되고 불안정 고용이 확대되기 시작했으나 이를 보완할 사회적 제도와 기능은 부재했고 가족 기능과 역할은 조정되지 않은 채 여성에게도 생계부양의 책임이 강제되기 시작한 것이다.

(4) 여성 노동자의 일대기가 시작되다

근대 이후 남성들의 생애는 노동자로서의 기본 정체성을 통해 구성되었다. 이는 여성들의 생애가 남성생계부양자모델에 근거한 성별분업 체계에서 사적 영역을 중심으로 계급과 계층에 따라 노동시장을 오가는 구성과 상대적으로 다르다. 남성들이 취업 후 평생직장, 혹은 몸값을 증폭시키기 위한 재취업의 양상으로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면 여성들은 결혼을 기점으로 가사, 임신, 출산, 양육을 중심으로 한 사적 영역의 무급노동과 유급노동을 중심으로 유급노동 사이를 오가는 분절적 노동시장 참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후기 산업화로 경제구조 변화와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적 이유 혹은 자기 성취의 이유로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는 활발해졌다(강이수, 2006).

참여자 1, 2, 3에서도 노동자로서 생애전망을 구축하는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연구참여자 모두 고등학교 졸업 이후 노동시장 진출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으며 모두

사무관리직으로 노동시장에 진출하였다. 당시 고등교육을 마친 여성에게 생애전망은 노동자로서 독립한 개인으로 시작되었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이들은 결혼 이후에도 직장생활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결혼 후 경력단절이라는 전통적 성별분업을 거부하고 사회속의 독립적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3명의 참여자 모두 결혼 이후에도 유급노동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결혼, 임신, 출산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후퇴 양상이 모든 여성의 생애과정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혼 이후에도 이러한 노동자의 생애경력을 이어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참여자 1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건축업계에 취직해서 결혼할 즈음인 30살 무렵에는 건축업계에서 사무관리 파트에서 능력도 인정받으면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있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잠시 일을 접은 기간을 제외하고 참여자 1의 노동시장의 경력은 계속되었다. 양육과 노동의 불안정한 조건에서 노동자로서의 생애전망을 놓지 않아 수급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었다. 하지만 노동시장 조건은 열악해서 보험-판매서비스업-자영업-보험을 오가며 일자리가 변화했고 소득의 불안정성 때문에 보충적 직업을 중복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참여자 1은 노동자로서의 초기 경력이 남성보다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혼 이후 경험한 차별적 노동현실에 비판적 시각이 많았다.

전 20살부터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했어요, 성실하게 일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했고 잠깐 결혼하고 전 남편 버릇고치겠다고 쉼 적 빼고는. 35년 지겹기도 하네.. (중략)... 남녀 임금 차이가 너무 나. 내가 만약 남자처럼 일할 수 있다면, 내가 젊었을 때는 또 운도 있고 애도 없으니 뭘 해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는 뭘 해도 잘 안돼요. 아이까지 있으니... 되든 안 되든 생활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맞벌이 하면 여자가 좀 덜 받아도 좀 살 수 있는 거죠. 나는 그게 아니니 늘 허덕대는 상황이었어요. 둘이 살아도 4명 사는 거 반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연구참여자 1)

참여자 2는 1997년 경제위기에 실직을 당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노동자성을 꾸준히 유지하게 된다. 이혼 후 육아와 일에 대한 고민으로 퇴직하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동네 주변의 작은 사업체로 갈아탄 경험을 제외하고 처음 일을 시작한 업종에서 현재까지도 자신의 노동 경력을 유지하고 있다. 성인초기 노동시장 접근이 완전한 전문직은

아니었지만 동일 업종에서 자신의 경력이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에서 역할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초기 노동시장 진입이 노동시장 지속성 유지에 상당히 중요한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적인 돌봄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과 업계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노동자로서의 생애전망은 확고했다.

참여자 3은 결혼을 하고 시댁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여건에서도 시댁 주변의 공장에서 경리생활을 유지하였다. 그로 인해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게 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분가 후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도 항상 부분적으로 유급노동에 참여했다. 참여자 3에게 직장생활은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는 길이며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믿음이 확고했다. 참여자 3이 이혼 후 한부모자립지원시설에 들어가게 된 것도 당장에 주거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했지만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말한다. 돌봄서비스가 부족한 사회적 현실, 또한 가족·친척들의 비공식 돌봄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한부모자립지원시설의 다른 한부모가 돌봄의 역할을 보조해주어 노동을 유지하면서 자립을 길을 준비할 수 있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알바하고 제가 제 용돈은 책임졌기 때문에 일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장 쪼들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시댁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고, 무엇보다 제가 벌어서 제가 자유롭게 쓰는 것이 중요했죠...(중략).. 워낙 부모님들이 저에게 도움이 안돼서 저는 사회생활을 계속하는 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어요, 뭘 알아야 애들한테도 길을 보여주죠. (연구참여자 3)

참여자들의 모습을 통해 평생에 걸친 여성노동자의 생애전망이 구축되기 시작한 시대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자 모두 당시로서는 고졸이상인 고학력자로 졸업 후 여성도 일을 해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었고, 사회생활을 계속해야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직업의식을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의 의식도 변화해서 노동시장에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생애과업으로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노동과 양육의 불안정한 한부모라는 조건에서도 노동이라는 삶의 축을 놓지 않고 가족을 유지하는 생애를 만들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2) 전환

(1) 세상에 어떤 이혼도 쉬운 이혼은 없다

참여자 모두 이혼을 고민하고 결정하고 법적인 완결에 이르는 과정은 지난한 과정으로 이어졌다. 참여자 1과 3은 별거, 재결합, 별거 등의 과정을 거쳐 이혼이 완결되었다. 참여자 1은 이혼이 부부 사이에 제기된 시점부터 법적인 결말에 이르는 과정에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참여자 3은 12년에 이르는 시간이 걸렸다. 참여자 1은 이혼을 하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다시 재결합해서는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기도 했다. 그래도 남편이 이혼을 쉽게 받아준 참여자 2만이 비교적 짧은 기간인 2년에 걸쳐 관계가 정리되었다. 결혼이 두 사람 간의 감정과 결정으로 이루어졌다면 아이가 생긴 이후는 감정만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의 사회적 성장과 연결된 복잡한 구조가 형성되어, 이혼은 어렵고도 지난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이혼에 이르는 과정이 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참여자들은 ‘아이들의 아빠’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참여자 1은 엄마에게 살갑지 않았던 아버지도 자식들에게만은 잘했던 것처럼, 그래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작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잡아보려고 했다. 참여자 3의 이혼도 별거와 재결합, 또 다시 별거, 이혼과 이혼 후 동거에 이르는 복잡다단한 과정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3은 자신이 생계부양자 역할을 하면서 가정을 버린 남편을, ‘아빠였기 때문에’ 몇 번이고 다시 받아들이며 이혼을 반복했다. 남편의 외도로 집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면서 이혼을 준비했지만 결국 다시 남편을 받아들였다. 그 후 정신 차리라고 참여자 3가 가출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아이들을 방임하고 다시 불륜행각을 벌였다. 모든 감정이 완전히 소진되고 나서야 남편을 구슬러 이혼을 했다.

집을 정리하고 마침 아는 친구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싸게 들어가기로 했죠. 근데 남편이 마지막 기회를 한번만 달라고 짹짹 빌더라구요. 이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구요. 친구네 집으로 같이 들어갔지. 친구는 나보러 미친년이라도 하고.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기회’.. 그렇게 얘기했죠. 그 사이 내가 가출도 하고 또 그 사람은 애도 내버리고 바람피고... 이혼하고도 한 6개월 같이 살았어요. (왜요) 잘 달래서 내보내려니까, “나는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니까. 내가 일본을 가서 돈 벌어들게. 언니가 일본 오려면 이혼도

장 찍고 와야 한데.. 싫으면 당신이 시택으로 가. 내가 애들하고 살면 나라에서
집은 준대”라고. 이혼도장 찍어주고 막판에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난 사실 정은
다 떨어졌고. (연구참여자 3)

참여자 2의 경우 이혼을 빨리 종결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남편이 쉽게 이혼을
받아들였고 이혼 후 곧바로 한국을 떠났기 때문이었다. 참여자 1, 3과 달리 더 이상 만
날 수 없는 공간적 단절이 빨리 이혼을 완결 지을 수 있는 물리적 조건으로 작용하였
다. 하지만 참여자 2의 경우도 결혼 이후 곧바로 남편에게 회의를 들기 시작한 시점
에서 2년에 걸친 숙고가 있었으며 만난 지 4개월 만에 진행된 결혼과 비교하자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이혼 과정은 다른 참여자들에 비해 짧았지만 이혼 이후의 적
응에 많은 에너지가 소진되었다.

(2) 내가 선택한 이혼

여성들은 친밀했던 관계에 대한 미련과 연민, 자녀의 문제, 경제적 위협, 사회적인
비난, 사회적 규범 등으로 가족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결혼한
참여자들은 모두 본인이 이혼을 요구하고 결정하게 된다. 결혼하는 것을 규범적 삶이
라고 따랐지만 결혼만이 정상적이 가족이 아니라 결혼으로 더 비참한 가족이 계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참여자들을 이혼으로 이끌었다. 아버지 역할을 안 하거나 못하고, 혹
은 있음으로 인해 더 큰 갈등이 지속된다면 아이와 엄마만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낫다
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난 이혼할 걸 숨기지는 않았어요.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어차피 이혼한 것은 다
알게 되죠. 내가 가산을 탕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자식
을 못나준 것도 아니고. 시부모에게 못한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이 남자가 싫
어서, 이 남자하고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깐 당당
하게 한 거죠. (연구참여자 1)

남편의 실직 이후에도 버텼지만, 반복되는 싸움과 아이를 낳은 날 보여준 남편
의 모습을 보면서 넌 아웃이라고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 2)

참여자 3은 이혼이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했다. 차라리 남편이라는 존재가 없어야 지

원받을 것들을 지원받고 생활할 수 있겠다는 현실적인 계산이 작용했다. 아무런 경제적 역할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법적인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사회안전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고 한다. 1998년 제도화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7년 개정된 한부모가족 지원법 등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보장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남편이 주는 현실적 고통이나 피해보다 더 다양한 혜택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참여자 1, 2, 3 모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새로운 가족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자녀’의 안정적인 삶에 대한 바람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전후한 상황에서도 직업적 이력을 유지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의 이혼이 주체적인 결정과 고양된 여성의식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기엔 너무 지난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버티며 살았던 앞선 세대의 삶과 연구참여자들의 삶은 확실히 달랐다. 이혼 과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자신이 이룬 것을 다 내주었지만 사회적인 시선이 곱지 않고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생애경로인 이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은 그녀들이었다. 이것은 이전 여성과 달리 이혼을 결정하고 ‘가족’을 자신이 부양하고 유지하겠다는 주체적 인식과 주체적 행위과정으로 볼 수 있다.

(3)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압도하다

하지만 참여자들에게 이혼 후 삶은 고통의 회전목마와도 같았다. 경제적 어려움, 양육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이 찾아왔다. 그것은 본인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아이의 성장과 생애주기의 변화, 그에 따른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심리적 압박과 고통을 촉발하기도 했다. 심리적, 신체적 고통이 아이의 성장과 함께 주기적으로 반복된 것이다. 특히 연구참여자 2에게 정신적인 공허함, 우울과 신체적 증상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처음 5년 동안 죽을 듯이 아팠어요. 그 때는 뭔지도 몰랐지만 대상포진, 신우신염, 후두염, 맹장수술까지 5년 사이에 모든 신체적 질병이 왔어요.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에 포대기로 아이 싸서 아이 봐주시는 분에게 아이 맡기고, 저녁에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순한 우리 아이가 잠들고 나면 멍하니, 그야 말로 멍하게 죽을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2)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일자리와 아이의 돌봄에 상당부분 안정이 이루어졌지만 아이에게 시작된 새로운 과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참여자 2의 고통도 시작되었다. 아이는 자신만이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에 문제를 품기 시작했고 참여자 2는 그것을 빠른 사춘기의 시작이라고 불렀다. 아이의 정체성에 대한 빠른 질문과 혼란은 사춘기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엄마도 함께 사춘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아이는 고작 초등학교 1학년이었다. 참여자 2의 자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상담을 받기 시작해서 5학년이 되어서야 종료가 되었다. 그동안 참여자 2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고, 엄마가 돌봄 지원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생각을 계속했다.

아이가 상담 받을 때 사실은 제가 상담을 받고 싶었어요. 비용이 비싸서 저는 도저히 받을 수 없었지만 아이를 상담소에 데려다 줄 때마다 내가 받고 싶다고 생각했죠. 죽을 생각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아이 잠들고 나서 죽을 생각으로 차 몰고 무조건 나갔죠. 엄청난 속도로 달렸는데도 안 죽더라구요. 다른 차들이 저를 못 쫓아와서 산 거예요...(웃음). (연구참여자 2)

하지만 아이가 중학교에 가면서 본격적인 사춘기가 시작되었고 다시 엄마에게도 고통이 찾아왔다. 아이의 모습에서 자기가 싫어하던 이혼한 남편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을 바꾸고 싶고, 거부하고 싶었던 상황이 반복되면서 더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고 뒤돌아보는 듯 이야기를 했다. 전 남편과의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아이에게 투영되고, 한편으로 아버지 없이 키운 자식의 모습으로 비춰질까하는 걱정이 중첩되면서 너무 엄격하게 아이를 키운 것에 대한 미안함을 이야기 했다. 참여자 2에게 아이의 존재는 남편과도 이어진 존재이며, 남편이 투영된 존재이기도 했다. 이혼 후 심리정서적 정리는 단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에 따른 심리적 문제, 전 남편 모습의 투영 등으로 반복, 심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4) 가부장제의 규범은 강하고, 가부장제의 실체는 없다

참여자들의 삶에서 가부장제 사회규범의 영향력은 삶의 빠른 전환을 방해한다. 참여자 1은 별거 시작 후 아이가 5살 정도까지 홀로 아이를 키우며 고군분투하다가 다시 찾아온 남편과 재결합을 하게 된다. 전남편은 자신의 어머니가 아픈 상황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돌봄 대행자로 참여자 1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고 아이를 핑계 삼아 관계를 복

원하게 된다. 아이에게 아빠노릇 한번 해보고 싶다는 서사, 어머니까지 아픈데 정신 차리고 살겠다는 남편의 서사는 결국 참여자 1의 시어머니 돌봄으로 이어졌을 뿐이었다.

참여자 3의 경우에도 시어머니는 가부장제의 전통에 따라 며느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정작 분가가 결정되었을 때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가부장제의 부계를 중심으로 한 재산 분할과 승계는 불가능했다.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에 시어머니는 “남자가 왜 집을 나오냐, 여자가 나가야지”라며 혹독한 가부장제의 논리를 반복했다. 결국 빌라와 자동차까지 내어주고서야 이혼을 할 수 있었다. 남편은 아이들 양육을 원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자녀의 양육을 조금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참여자 2의 남편과 그의 부모들도 남자로 연결된 가부장제의 유지와 그를 위한 책임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왜 자기만 아빠가 없냐고 묻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외국으로 돈 벌러 갔다고 이야기 했는데.. 아빠를 쫓아낸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어쩔 수없이 시댁과 연락을 했어요. 그래도 손주라고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났죠. 근데 아이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빠를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안되면 편지라고 보내고 싶다고.. 근데, 그분들은 그러려면 오지 말라고 딱 잘라 거절하더라고요. 거기서 더 나가면 경제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담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연구참여자 2)

1990년대 후반부터 가부장제의 실재적 작동은 적어도 중하층 이하에서 작동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중심으로 재산을 증여하고 그를 중심으로 남성중심적인 생태체계를 유지해온 사회의 균열이 실제적으로 생기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과 달리 1997년 경제위기이후 우리사회를 지배했던 ‘고개 숙인 아버지’담론은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재편과 대응에 대한 논의가 아닌 남성이 여성보다 노동시장에서 살아남아 할 논리로 변질되었다. 남성 가부장제는 파열되고 있었지만 ‘고개숙인 남성’담론은 가부장제를 유지하고 옹호하는 힘으로 작용하였을 뿐이다.

(5) 가족도 외면하는 이혼, 고립과 단절로 이어지다

참여자들은 이혼 초기 공통적으로 사회적 단절, 혹은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 가부장제 규범과 이로 인한 결혼 규범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이혼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만큼 흔한 현상이 되었다. 하지만 이혼은 여전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다. 따라서 이혼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였지만 당당히 세상 속에서 살지 못하고 고립과 단절이 이어졌다. 사회적 고립과 단절은 원가족으로부터 친구,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관계,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참여자 2의 어머니는 당시 딸의 이혼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다. 그 이후로 참여자2는 어머니와 단절했고 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시기로 결정할 때까지 7년 이상을 한 번도 얼굴을 보지 않은 상태로 지냈다. 부모자식과의 인연보다 사회적 규범을 어긴 자식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더 강한 사회였다. 그러다보니 모든 관계에서 더 예민해지고 각을 세웠다 특히 아이의 학교 모임, 동네 슈퍼를 이용하는 것도 자유롭지 않았다.

엄마는 제가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혼한 게 부끄럽고.. 애 봐주시던 분이 못 보게 되고, 언니가 다시 연결해서 엄마가 애를 보시게 될 때까지.. 거의 7년 이상을 엄마를 보지 않고 살았지요...(중략)..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 맡기고 일 가고, 갔다 오면 아이 잘 때까지 있다가, 술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술을 사러가야 되는데, 누가 아는 것도 아닌데, 이혼한 사람이 맨날 술 마신다는 얘기 들을까봐 동네 슈퍼 못가고, 집하고 멀리 떨어진 대로.. (중략).. 아이가 운동을 해서 부모들 모임이 많았는데. 정말 가는 게 죽기보다 싫은 거죠. 당시 만났던 부모들을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해요. 처음 봤을 때 완전히 가서 돌친 고슴도치였다고.. (웃음). (연구참여자 2)

참여자 3은 시댁에서 분기하면서 시댁과의 관계는 끊어졌고, 이혼 이후 자신의 친부모와도 단절되게 된다. 참여자 3이 이혼하자 부모님들이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다는 태도를 완강하게 보여주면서 참여자 3은 처음으로 부모에 대한 원망이 생겼다.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을 때가 되어서야 참여자 3이 스스로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엄마가 보지도 말자고 하더라고요. 원래도 부모 도움을 바라지도 않았고 받아본 적도 없지만 이혼하고 엄마가 그렇게 말하는데 정말 원망스럽더라고요. (연구참여자 3)

참여자 1만이 유일하게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부장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는 잘하셨던 아버지가 참여자 1의 편에 서서 지원을 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참여자 1은 친구들 사이에서의 고립을 경험하게 된다. 결혼이

라는 제도를 벗어난 여성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위험한’ 존재로, 남성들에게는 ‘쉬운’ 상대로 비쳐지게 되고, 그것을 암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사회적 고립이 강화된다.

제가 결혼이 늦어서, 결혼한 친구들과 남편들까지 잘 어울려 지냈어요. 친구들끼리는 살림얘기해도 전 오히려 친구 남편들과 사업 얘기하고 그랬죠. 근데 제가 이혼한 이후로 분위기가 영... 친구들은 내가 자기 남편을 어찌기라도 하듯 눈초리가 달라지더라구요. (연구참여자 1)

이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이혼 여성이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스스로 단절하는 사회적 양상을 강제한다. 한편 이혼이 사회적으로 증가하면서 이혼한 여성의 새로운 사회적 모델이 제시되기도 했다. 당시 이혼 커리어 여성으로 대표되던 백지연 씨의 모습을 보며 참여자 2는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는 이혼 여성의 이미지와 동떨어진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에 더 큰 절망, 자기 분노를 느끼기도 했다고 술회했다.

(6) 좁고 가느다란 사회적 안전망, 낙인화된 안전망

게다가 한국은 사회안전망 없는 사회였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대량 실직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위한 사회복지제도 확충에 공을 들였지만 제도적으로 한부모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빈곤, 돌봄의 삼중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부재했다. 참여자 1은 도움을 받고자 찾아간 주민자치센터에서 “나이도 젊고 아이도 하나인데 왜 사회의 도움의 받으려고 하나”는 힐난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참여자 2의 아이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정체성의 혼란이 왔다. 그것을 참여자 2는 아이의 사춘기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그것을 우리사회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사회문화적 규범이 아이를 억압한 결과였다.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엄마, 아빠가 같이 호명되어야만 했다.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부재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아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상담을 받아야 했다. 다행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아이도 그 현실에서 자기 자신을 잘 견뎌내서 5학년이 되어 상담을 종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때까지 사회적으로 어떤 지원도 도움도 없었다.

학교에 들어가니까 아빠 이름 쓰는 게 왜 그렇게 많은지... 가족사진은 왜 그렇게 가져오라고 하고... 그러니 아이도 아빠가 없다는 게 자꾸 느껴지고...견딜 수 없

는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 상담을 받았는데... 혼자서 애 키우면서 국가로부터 1원 한 푼 받은 게 없어요. 제가 다 했죠. 제가...(연구참여자 2)

시기적으로 가장 늦게 이혼한(2006년) 참여자 3만이 그래도 사회안전망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참여자 3의 경우는 이혼하자마자 인터넷 등을 통해 지원정보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실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조건에 맞추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아는 분에게 자모원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도 인맥을 다 동원했죠. 원장하고 상담을 하고... 당시 제가 보험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학교에도 가고 하니까 자유로운 직업이 필요했던 거죠. 보험이 1년은 수입이 괜찮아요. 수입이 다 잡히니까 나라에서 집 지원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직장도 때려치우고 원장님하고 상담해서 구청에서 사회복지 일 하는 것 소개를 받고, 이제 집세 안 나가고 수급도 받게 됐고. (연구참여자 3)

참여자 3은 사회안전망 속에 있어야 한부모시설에 들어가고 주거안정이 확보되기에 그 조건을 맞추게 된다. 하지만 기초수급에서 4인 가족 생계비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었고 그 기준에 맞추어 일하는 것으로는 사실상 자립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참여자 3이 선택한 길은 편법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참여자 3은 보이지 않는(추가적) 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다. 저녁에 알바를 하지만 그 소득은 보이지 않게 편법으로 감춰야만 했다.

한편 한부모자립지원시설이 자립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삶의 조건을 마련해 주었으나 낙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큰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서 이상한 행동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이 이러한 시설에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당장에 먹고 살고 미래를 위해 삶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도 이혼과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이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낙인감이 생기기 시작한 것을 알게 되자 참여자 3은 모자시설을 나왔다.

큰 아이가 집을 오는데 곧바로 오지 않더라구요. 곧바로 오면 빠른 길인데.. 빙 돌아서 집에 오는 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알게 됐죠. (연구참여자 3)

현재 모자복지시설은 재가복지보다 전체적으로 혜택이 많은 편이지만 시설의 외양

과 구조만으로도 낙인감을 구성한다. 어린 시절 형성된 낙인의 문제는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시설중심 지원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7) 이혼과 한부모, 차별의 이유가 된다

이혼과 함께 노동과 양육의 이중부담을 지고 있는 한부모에게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 못했다. 한부모여성의 아동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의 역할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그 당시 이념형인 정상가족에서 벗어났다는 것 자체, 혹은 가부장제 정상성에서 벗어난 삶의 조건이 차별의 이유로 가시화된다. 일자리에서도 차별은 가시적이었다.

처음에는 회사가 그저 고마웠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혼했다는 게,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이 회사에서 저를 붙잡아 두는 큰 족쇄인 거죠. 저랑 같이 들어온 사람들 다 승진했고, 저보다 늦게 들어온 어린 애들이 다 승진했거든요. 저만 제일 늦어요. 제가 다른 곳 못 간다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애 데리고 혼자서 어디 가겠냐.. 그거죠. (연구참여자 2)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여성에게 가지는 대상화된 정체성은 ‘쉬운 대상’으로 압축된다. 여성이라는 조건에서의 노동권의 제한과 차별, 자녀 돌봄으로 인한 노동권의 제한과 차별 등에 더하여 ‘가부장이 없는 존재이자 사회적 자본이 없는 존재’로서의 방어벽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여성 중에서도 빈곤의 위험이 높고,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과 이혼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근로조건이나 차별에 있어) ‘쉬운 대상’으로 간주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정말 공들인 건수가 있었어요. 기업을 하던 분이었는데 절세하는 것도 다 안내하고 저 땀에 엄청나게 이익도 봤어요. 회사에서도 엄청 같이 신경 쓰고 공들이고, 막상 계약하려고 하니, 그렇게 맨입으로 먹으려고 하냐고 손 한번 못 잡아 봤다구.. 더 기가 막힌 것 우리 팀장이 저한테 그렇게 사회생활했는데 융통성이 없냐구, 입 한번 맞춘다고 뭐 그리 달라지냐구, 팀장이 다 해드시라고 하고 나왔죠. 이혼한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쉽게 얘기했을까요... (연구참여자 1)

참여자 1은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여자라는 이유로 쉽게 성적으로 쉬운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런 현실을 거부하면 결국 불이익이 되어 돌아왔다. 노동시장 내에

서 자신의 노동으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통해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성적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사회적 차별과 압박을 경험했다. 한부모는 한부모라는 이유만으로 빈곤(경제적 어려움)의 상징이 되고 그것이 다시 차별의 이유가 되었으며 이혼이라는 정상가족에서의 이탈은 성적 위계에서 낮은 처지로 대상화되는 맥락으로 작동했다.

3) 적응

(1) 아이와 함께 성장하다

Carter and McGoldrick(1995)는 이혼 후 적응의 과정에 2년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복잡하다. 그들은 정서적 차원의 적응에 2년을 예측했지만, 정서적 과제가 발현되는 시점은 개개인별로 완전히 다양하다. 이혼 당사자인 한부모여성은 이혼의 시점을 전후해서 나타난다고 하지만, 자녀들의 경우 연령, 발달 단계, 사회적 환경에 따라 정서적 갈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자녀의 정서적 문제의 발현은 결국 한부모여성에게 다시금 정서적 고통과 갈등을 재소환시킨다. 따라서 한부모의 안정은 자녀의 안정과 밀접히 연결된다.

참여자 1과 참여자 3의 경우, 자녀들이 아버지의 현실적 모습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서적 갈등과 정체성 혼란이 크지 않았다. 그럼에도 자녀의 성장에 따라 발생하는 혼란은 한부모의 심리적 갈등을 재소환시켰다. 참여자 1의 경우 별거 이후 아이와 대화가 가능할 무렵부터 아이에게 왜 같이 살 수 없는 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려했다. 하지만 어린 자녀는 곧잘 자신만 아버지가 없음을 힘들어했고 “자기만 아빠가 없는 게 억울하다”고 했다. 그것이 남편과 재결합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다. 다시 이어진 별거와 이혼 속에서 자녀의 정서적 혼란이 적었던 것은 대화로 심리적 상황을 교류하고 함께 결정했기 때문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아이가 돌도 되기 전 이혼을 한 참여자 2의 경우, 이혼의 과정을 아이와 공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빠는 돈 벌러 외국에 갔다’는 말로는 해결되지 않는 아이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자 2는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는 전략을 선택했다. 다행히 학교선생님, 아이의 성장과정에서 만났던 학부모들의 지지와 지원으로 함께 했고, 그 속에서 아이와 엄마는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졌다.

많은 사람들이 왜 애는 키우냐고 물어요. 제가 답변을 해도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아니라면 이혼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건 모성애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나은 아이에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하기 어려운 삶에 그냥 아이를 남겨둘 수 없는 거죠. (연구참여자 2)

참여자들이 이혼을 결정한 이유는 자녀 때문이었다. 생애의 중요한 결정마다 중요한 결정의 가치는 자녀로 이어졌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주거를 선택하는 것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과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자녀의 삶을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책임지겠다는 책임감 하나로 가족을 이끌고 삶을 살아내었다.

(2) 노동과 양육의 줄타기

한부모여성의 경제적 문제는 지속적인 적응의 과제이다. 하지만 한부모에게 경제적 안정과 자녀의 돌봄이라는 과제는 동시적 과제이며 제한된 시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한부모에게 경제적 자립과 자녀의 양육은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야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공적 보육서비스와 일가족 양립을 위한 지원제도가 불충분하고 대다수가 불안정한 노동지위에 있는 한부모여성의 노동권과 부모권(가족구성권)은 결국 양립이 불가능한 충돌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결국 생계(노동)에 중심을 두거나, 돌봄에 중심을 두는 선택을 하게 되며 그로 인한 불충분성은 결국 의존이나 불안정성으로 귀결되게 된다.

참여자 2의 경우는 생계와 양육을 함께 해결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면서 생계부양자 역할을 중심으로 생활을 재구성하였다.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혼한 것도 아닌데, 차라리 덜 벌더라도 아이와 함께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동네에 조그만 회사에 취직해서, 아이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끝나면 데려오고 했죠. 생활이 정말 엉망이 되더라구요.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연구참여자 2)

결국 이 딜레마는 참여자 2가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김으로써 해결이 되었다. 참여자 2는 보통 양부모 가정에서 남성이 수행하는 생계부양자 역할을 수행하고 친정어머

니가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전형적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의 한부모 버전이 전개된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도 보육서비스도 불충분한 상태에서 노동(생계)을 유지하기 위해 참여자 2는 어쩔 수 없이 돌봄기능을 부모님에게 전가하고 생계부양자 중심의 삶을 구성하였다.

참여자 1은 불안정한 생계부양과 불안정한 돌봄을 반복적으로 순환하는 대응방식을 취했다. 결혼과 출산, 이어진 별거와 이혼 등의 불안정성은 기존의 자신이 일하던 직종으로 복귀하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자녀를 키우는데 시간적 탄력성을 가질 수 있었던 보험설계사로 전업하게 된다. 그 이후 현재까지 참여자 1은 보험설계사, 의류 판매직, 자영업, 청소 등의 직업을 경험하게 된다. 자녀돌봄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자녀의 돌봄을 중심으로 선택한 불안정한 일자리는 불안정한 소득과 이직, 또다시 빈곤으로 이어졌다. 또한 시간 탄력성이 있는 일자리도 결국 시간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고, 판매직 같은 경우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기도 해 돌봄 공백과 불안정한 돌봄이 반복되었다. 불안정한 생계부양과 불충분한 돌봄은 저소득 한부모여성이 경험하는 전형적인 양상이다.

이혼 후 빠르게 복지 우산 밑으로 들어간 참여자 3은 기초수급자로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정부가 보조하는 가운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기초수급 기준을 충족, 유지하는 것은 한부모이며 다자녀가구를 구성하고 있던 참여자 3에게 상당히 중요한 생계 기반이었다. 기초수급 급여뿐만 아니라 저소득한부모에게 주는 혜택이 상당했다. 양육비 외에 학비 등의 혜택과 부정기적으로 있는 장학금 등의 지원, 자산형성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저소득한부모(기초수급) 자격이 자녀들이 성년으로 성장할 때까지 경제적 안정과 자녀 양육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자라고 노동과 돌봄의 긴장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기초수급자들에게 자립을 강조하지만 대안적 정책설계는 미비하여 참여자 3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시기를 편법수급자의 양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투잡(two-jobs), 때로는 쓰리잡(three-jobs)을 하면서 편법적인 관행으로 자립의 기반을 준비하였다. 이는 자녀가 어렸을 때는 한부모자립시설에서 다른 한부모의 도움을 받고, 탈시설 후에는 자녀들끼리 서로를 돌보는 불안정한 돌봄과 맞물려 돌아갔다. 국가가 생계를 보조했지만 늘 생계비는 부족하고 자립은 불가능해, 몇 개의 일자리를 바쁘게 뛰어다니는 동안 자녀들은 돌봄 공백 속에 있어야 했다.

자모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제가 알바 나가면 아이들을 봐줬으니 가능했죠 언니가 아이들 봐주는 동안, 대리기사 콜센터에서 밤늦게까지 알바하고 주말에도 미친 듯이 알바하면서 빚도 갚고, 다 빚이지만 집도 사고,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됐어요 남편과 살았으면 불가능했겠죠, 국가가 남편보다 나아요. (연구참여자 3)

(3) 성찰과 강점으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다

참여자들이 적응을 통해 회복한 것은 사회적 관계망이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자기 성찰과 성숙이라는 또 다른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참여자 2는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 원천적인 힘으로 작용했다. “모든 것을 오픈하자”는 마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시작이 되었고, 사회의 일반적인 시선과 문화는 이혼한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으로 참여자를 어렵게 했지만 구체적인 관계에서는 지지적 관계의 확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저는 연초에 학교에서 총회 열리잖아요, 그 때 어떻게든 갔어요 엄마들 회의 갈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나 이혼한 이야기, 아이에 대한 고민까지. 사실 아이가 상담을 받게 된 것도 담임 선생님이 권해서. 자기 아이도 상담을 받고 있고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연구참여자 2)

참여자 1은 성찰과 강인함, 강한 자존감이라는 원천이 있었다. 이혼 후 나락과 같은 상황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들 등 돌린 듯한 상황에서 지난날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에서 큰 깨달음 같은 것을 얻었고 아직도 그것을 교훈 삼아 살고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참여자 2는 지금도 몇 가지의 직업을 동시에 소화하면서 자신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사실 처음에 친구들조차 이해되지 않았지. 내가 돈을 벌 때 얼마나 잘 사 먹이고 잘 해줬는데... 이혼하고 보험한다고 하니까 전화도 안 받더라고... 처음에 화가 났지만 차츰 지난날 내가 어땠는지 보이더라구. 사실은 내가 잘난 맛에 나 좋자고 했던 행동들이었지. 그게 사실은 내 자량이었던 거야. (연구참여자 1)

참여자 3은 특유의 솔직함과 부지런함, 사회성을 바탕으로 한 번 맺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관계망을 만들어 갔다.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고, 도와가며 다양한 사회관계망을 구축하였다.

제가 사회성은 있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어요. 한 분 한 분이 가르쳐준 정보를 놓치지 않고, 필요할 때 찾아가서 도움도 요청하고.. 그렇게.. 보험 할 때 만났던 분들이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분들이 제가 자모원 들어갈 때도 도와주시고 알바자리도 만들어주고, 꽃 파시는 분은 졸업식 때가서 같이 꽃 팔고.. 그러면서 지금껏 만나고. (연구참여자 3)

(4) 이제 진정한 독립이 필요하다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성년기에 접어들면서 자녀 독립 이후를 고민하고 있다. 사실 자녀들이 성년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고 안정적인 삶을 설계하기 어려운 조건에 대해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 아이에게 조그만 원룸이라도 얻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없게 시작하면 인생이 어려우니까, 그냥 살 수 있는 집이라도 한 채 있으면 좋겠는데... 당장에 아이가 졸업하고 나면 지금 있는 임대주택도 정리를 해야 하고... (연구참여자 1)

전 아이에게 이제 독립할 때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이도 농담으로만 받아들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2)

아이들이 이렇게 커준 게 정말 고맙죠. 자기들이 알아서 외국도 나가고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그동안 자립을 위해 준비했던 통장들도 그걸 위해 쓰는 건 찬성이예요. 아직 빚이 많지만 집도 사고..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받아왔던 정부의 혜택도 정리되고 저도 장기적으로 전망을 가지고 인생을 준비해야 하고... (연구참여자 3)

참여자 모두 아이들과의 분리독립, 그리고 이후의 생애를 계획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 계획이 녹록해 보이지는 않았다. 독립을 앞두고 있는 참여자들과 그들의 자녀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같은 문제를 안고 시작한다. 지금까지 자녀와 함께 이혼한 한부모여성으로서 삶을 잘 헤쳐 나왔지만 이제 자녀와 각각 독립적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에서 이들의 삶의 토대는 몹시 허약하다.

양부모로 이루어진 가족의 생애주기에서 ‘가족축소기’로 명명되지만 한부모가족은

가족 축소가 아니라 대부분 1인 가구로의 전환으로 나타난다. 20여년 넘게 자녀와 일체화된 삶을 살아온 한부모와 자녀가 각각 독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심리정서적 준비와 재정적 준비가 필요하다. 사실상 한부모의 자녀들도 그런 상황을 잘 알기에 분리의 과정이 상당히 큰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분리·독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에서 특히 주거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상황으로 재취업, 창업 등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참여자 1의 결심은 의미심장하다.

내가 재혼을 안 하면 우리 아이가 저에게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전 재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제 걱정 안하고 살려면 제가 좀 안정적인 남자를 만나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연구참여자 1)

정년 이후를 바라볼 수 있는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당장에 월급이 쭉 나오는 게 아니니까, 취업도 고민되고.. 이제 인생도 좀 즐겨야겠고.. (연구참여자 3)

아직 별 계획은 없어요. 우선 주욱 같이 살아온 엄마랑 독립을 하고 혼자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연구참여자 2)

이혼 후 한부모여성은 성별 임금격차, 정상가족 규범에 의한 차별, 돌봄에 대한 책임 등 이중, 삼중의 제약을 버티며, 자녀를 성장시켰다. 연구참여자들에게 노후준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자녀의 독립기반은 너무도 허약하다. 이 문제를 한부모여성의 개인적 문제로만 미뤄야 할 것인가가 남겨진 과제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가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한부모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구성하고 대처해왔는지 살펴보았다.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이혼을 한 후 영유아 자녀를 성년으로 성장시킨 한부모여성의 생애사를 통해 드러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는 정상가족신화가 강고하고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가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남성가장의 고용 안정성이 약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남성 1인 생계부양자모델은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확인했다. 가부장제 질서는 규범적으로는 강하지만 장자상속, 부계계승 등을 통한 도구적 유지는 약해지고 있었다. 둘째, 참여자들은 생애 초기에 안정적인 직업 이력을 형성하여 결혼·임신·출산·양육에 이르는 과정에서 노동자로서의 생애전망을 유지하여 이혼을 결정하고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속에서도 노동과 양육의 충돌을 조정하여 왔다. 하지만 제도의 불충분성은 한부모여성의 빈곤을 구조화하고 노동권과 부모권의 충돌을 구조화하였다. 셋째, 정상가족 중심의 제도와 문화는 자녀들에게 정체성 혼란과 심리정서적 문제를 일으키며 이 과정과 맞물려 한부모여성의 심리정서적 문제도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의 생애는 Carter and McGoldrick(1995)의 제시대로 단선적이지 않으며, 별거와 재결합, 별거, 이혼 후 동거 등 다양한 양상과 경로로 이어지는 복잡한 과정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여성의 적응도 이혼 후 몇 년 안에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 속에서 경험하는 정체성 혼란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함께 겪으며 반복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년이 된 자녀의 독립은 한부모여성이 단독가구로의 전환되는 기점으로 주거 및 재정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한부모지원정책이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간으로 저소득, 요보호 대상을 초점화하여 접근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적 권리수준에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생애에서 확인되었듯 법정 한부모이든, 국민기초수급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이든,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한부모이든 노동과 돌봄의 이중 제약으로 인한 의존의 구조화가 나타나고 있다. 빈곤으로 인한 제도적 의존은 한부모들의 선택이 아닌 여성과 한부모에 대한 노동시장의 차별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제공되지 않은 사회적으로 강요된 프레임이다. 한부모 여성을 의존적 존재로 내모는 것은 성차별적인 임금 격차와 성차별적 고용관행, 아동의 양육을 사회와 국가가 온전히 책임지지 않는 현실이다.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노동권과 부모권은 사회적 권리로 온전히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은 여성사회권 실현수준의 가늠자로 전체 여성의 사회권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 따라서 전체 한부모여성의 노동권과 부모권을 보장하는 관점에서 사회보장 수준을 재구조화려는 전환적 사고가 요구된다.

둘째, 일·가족양립정책이 부부가족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현실을 개선하여 한부모

가족(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양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시행 중인 육아휴직 및 2020년부터 시행할 가족돌봄휴가(휴직) 제도 등은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부모가구는 2018년 기준 전체가구의 10.9%에 달하고 있으며, 유일한 생계원과 양육자에 의존하고 있어 일가족양립을 위한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 취업한 한부모의 41.2%가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33.7%는 오후 7시 이후에 퇴근하였으며, 오전 중에 퇴근하는 한부모도 5.1%으로 나타났으며,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경우도 16.2%에 달하였다(여성가족부, 2019). 또한 2018년 『아동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자녀가 평일 방과 후 혼자 있는 응답 비율은 24.7%로, 양부모 자녀가 혼자 있는 비율(9.5%)보다 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부모가족의 일가족 충돌과 돌봄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독일, 노르웨이 등에서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등 일가족양립 정책에서 있어 한부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한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시 양부모와 형평성과 단일 생계원이라는 상황을 고려하여 급여와 수혜 기간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한부모는 보육서비스 순위에서도 맞벌이 양부모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한부모의 부모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한부모에게 필요한 가사서비스 등의 바우처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여자들에게서 확인된 것처럼 가부장적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이혼은 기존의 친정과도 단절되는 경험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일상의 돌봄 지원 뿐만 아니라 긴급 시의 양육지원을 할 수 있는 돌봄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기제는 한부모여성에게 더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취업한 한부모들의 임시일용, 무급가족종사 비율이 47.5%에 이르고, 종사자 1~4인 규모의 사업체에 종사하는 경우는 46.6%에 달했다(여성가족부, 2019). 남녀 차별적인 이중노동시장 구조가 한부모에게 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자녀양육의 단독 책임은 노동시장 선택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제약한다. 또한 차별적 임금 격차와 차별적 인사관행이 한부모라는 존재조건과 결합하여 더욱 취약한 노동조건으로 귀결된다.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임금격차, 남성(부양자)중심적 인사 관행과 조직문화 전반의 변화를 유도하고 법적 강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는 강조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부모여성 고용인센티브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겠다.

넷째, 이혼한 한부모여성(모든 한부모가족)에게 나타나는 심리정서적인 문제는 이혼

후 개인적 수준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과정과 맞물려 다시 반복된다. 자녀의 정체성의 혼란, 차별의 내면화는 한부모 여성에게도 그대로 투영된다. 따라서 한부모 여성뿐만 아니라 자녀의 성장을 고려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이혼을 전후한 과정에서부터 자녀의 성장과 한부모여성의 독립기까지 요구되는 심리·정서적, 정보·도구적 지원체계를 포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심리상담만이 아니라 한부모와 자녀가 자신의 선택과 삶에 대해 임파워링할 수 있고, 효과적인 대처방식, 다양한 삶의 가능성을 확보하는 강점관점의 지지체계가 되어야 하겠다.

다섯째, 한부모여성에게 주거와 자산 형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한부모 가족의 자산수준은 전체가구 평균순자산액의 25.1%수준이며 빛의 많은 부문은 주거비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9). 자산형성의 부족은 자녀 독립기에 다시 독립된 두 가구의 빈곤으로 확대되거나 독립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강제될 수 있다. 자산의 빈곤은 주거빈곤으로, 주거빈곤은 다양한 삶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통제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주거대책을 현실화하고 자산형성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주거문제는 자녀양육기에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며, 자녀독립-가구분리 이후 빈곤한 노년, 한부모가족 자녀의 세습된 빈곤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주거공급에서 한부모가족의 우선공급을 확대하고, 전 생애에 걸친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무시는 경제 사회적, 문화적 배제와 한부모가족의 사회적 고립을 유발한다. 따라서 한부모와 그 가족에 대한 총체적 차별은 우리 사회가 넘어가야 할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변화하는 다양한 가족구조와 현실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가족’이라는 정상성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즉 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형태를 이념화, 제도화 하는 기본 제도 설계를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한부모를 포함한 여러 다양한 가족구성 방식에 대한 사회적 차별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구성을 해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사회복지제도와 가족정책의 제도설계에서 자유로운 시민 개개인의 생애에 근거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다각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송다영, 2013). 법률, 제도, 문화 전반에 작용하는 가부장제와 정상가족 이념에 대한 점검과 전환이 필요하며 권리주체로서 개인에 근거한 자유로운 친밀한 관계구성이 가능할 때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 강이수, 2006, “해방 후 한국경제의 변화와 여성의 노동경험-차별과 주변화의 지속”, 『여성
과 역사』, 4: 43-76.
- 김경옥, 2017, “이혼한 한부모여성의 자녀양육경험”,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7): 501-510.
- 김혜선·김은하, 2010, “이혼한 여성 한부모 어머니의 경험: 삶의 위기에서 시작된 경험들”,
『한국위기관리논집』, 6(1): 219-242.
- 김혜영·변화순·윤홍식, 2008, “여성의 이혼과 빈곤-직업과 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0(2): 37-63.
- 문은영·김보람, 2010, 『서울시 한부모가족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백은영·이명우, 2018, “이혼을 선택한 여성 한부모의 행복경험”, 『재활심리연구』, 25(2):
299-325.
- 보건복지부, 2018, 『아동종합실태조사』.
- 송다영, 2013,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생애주기별 복지와 돌봄 패러다임”, 『페미니즘 연구』,
13(1): 93-129.
- 송다영·김미주·최희경·장수정, 2019, 『새로 쓰는 여성복지론: 쟁점과 실천』, 파주: 양서원.
- 손서희, 2013, “이혼한 여성 한부모의 홀로서기 경험”,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 59-75.
- 여성가족부, 2015, 2019, 『2014, 2018, 한부모 가족 실태 조사』.
- 윤정연·유미숙, 2018, “이혼 여성의 자녀양육 경험”, 『놀이치료연구』, 22(1): 75-88.
- 이희영, 2005,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행위이론의 관점에서 본 이론적 의
의와 방법론적 원칙”, 한국사회학, 39(3): 120-148.
- 정민자·문혜선, 2012, “이혼과정에 관한 가족생애사적 사례연구”, 『가족과 상담』, 2(2): 5-93.
- 정이윤, 2016,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적 포용: 정책현황과 과제”, 『한국정책학
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6: 322-359.
- 조희선·전보영, 2013, “생애사를 통해 본 이혼 한부모여성가장의 삶과 적응”, 『한국가족관
계학회지』, 18(3): 179-206.
- 최효식, 2018, “이혼 가정 자녀의 긍정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가구 소득의 조
절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6): 465-475.
- 통계청, 2015, 2016, 2017, 2018, 2019, <http://kosis.kr>. (2019.8.24 검색)

- 한경혜, 2005, “생애사 연구를 통해 본 남성의 삶”,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1-3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황희숙, 2015, “한부모 가정의 빈곤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14: 159-180.
- Bertaux, D., 1981. “From the life-history approach to the transformation of sociological practice”, *Biography and Society: The Life History Approach in the Social Sciences*, 29-45.
- Carter, B., and McGoldrick, M., 1988,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New York, NY: Gardner Press.
- Daryanani, I., Hamilton, J. L., Abramson, L. Y., and Alloy, L. B., 2016, “Single mother parenting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7): 1411-1423.
- Fischer-Rosenthal, W., 1996, “Strukturelle Analyse biographischer Texte”, *Quantitative Einzelfallanalyse und Qualitative Verfahren GieBen*, Psychosozial Verlag: 147-208.
- Glaser, B. G., 1998, *Doing grounded theory: Issues and discussions*, Sociology Press, Mill Valley, CA.
- Gubrium, J. F., and Holstein, J. A., 1990, *What is family?*, Mayfield Verlag, GieBen.
- Kramer, K. Z., Myhra, L. L., Zuiker, V. S., and Bauer, J. W., 2016, “Comparison of poverty and income disparity of single mothers and fathers across three decades: 1990–2010”, *Gender Issues*, 33(1): 22-41.
- Maldonado, L. C., and Nieuwenhuis, R., 2015, “Family policies and single parent poverty in 18 OECD countries, 1978–2008”, *Community, Work & Family*, 18(4): 395-415.
- Mandelbaum, D. G., 1973, “The study of life history: Gandhi”, *Current Anthropology*, 14: 177-207.
- Pearce, D., 1978, “The feminization of poverty: Women, work, and welfare”, *Urban and Social Change Review*, 11(February): 28–36.

Abstract

Life History Research of Divorced Single-parent Women

Lee, HyeJu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Ph. D. Student)

Song, DaYoung

(Incheo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In this study, we wanted to examine the composition and changes of the lives of divorced single-parent women and their families in the era of the rapid increase in crude divorce rate after the economic crisis of 1997. Three divorced single-parent women, whose children were raised from the time of infants to adulthood, participated in the study. We conducted a life history study, an optimal way of looking at social conditions and individual processes. The thematic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Mendelbaum's concept of time-based analysis and categorical content access.

As a result,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the reality of the patriarchal system was weakened, cracks in the male-living care model began, and the women who established their career prospects as workers in early adulthood were making up a "new family" through divorce. However, the social safety net and the lack of family policy resulted in conflicts of labor and custody, and the dependence was structured and the instability of livelihood and care continued. It also had to experience social isolation, discrimination, social sentiment and physical pain amid the myths of a normal family and patriarchal ideology, and suffered psychological and emotional pain repeatedly according to the child's growth cycle. They are set to switch to child independence - single households - but lack later lifetime preparation. Based on the results, We presented the need to change the policy of single parents and social policy that covers various families.

Key Words : divorce, single-parent, single-parent family, life history, thematic analysis